chudosa.com

사랑하는 유가족과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미자 권사님을 마지막 길까지 배웅하러 오신 모든 이웃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관의 자리에서 권사님의 삶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께 의탁하여 고별 인사를 드립니다.

1955년 5월 28일 인천에서 태어나 자라시고, 결혼 후 남양주에 뿌리내리신 최미자 권사님은, 2026년 4월 10일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향년 70세. 남편 정동환 집사님, 자녀 정하늘·정우성 성도님,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주 둘을 남겨두고 잠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권사님의 담임목사로서, 신앙과 이웃 사랑의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권사님은 20년 동안 교회를 권사로 섬기시며 찬양대에서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셨고, 예배 후면 가장 늦게까지 묵묵히 정리하시던 그 손길로 공동체를 지키셨습니다. 약속을 꼭 지키는 신뢰,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누구보다 늦게까지 부지런하던 걸음, 아픈 이를 잊지 않고 이름을 불러 기도하던 섬세한 배려가 우리 기억 속에 또렷합니다.

권사님은 가정식 반찬가게를 운영하며 이웃을 돌보셨습니다. 어려운 형편의 가정, 병중에 계신 성도, 홀로 사시는 어르신을 기억해, 말 대신 반찬통을 건네며 “작은 친절이 큰 기적이 된다”는 믿음을 일상에서 증명하셨습니다. 성가 연습이 있는 날에도, 김장 나눔이 있는 계절에도, 동네 둘레길을 걸으며 만난 이웃의 형편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돌아와 챙기셨습니다.

제게 가장 선명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성탄 전날이었습니다. 새벽이 오도록 동네를 다니며 반찬을 나누던 그 밤, 권사님이 제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동네는 배고프지 않게 하자구요.” 그 말은 그날의 구호가 아니라, 권사님의 평생 신조였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권사님은 크게 외치지 않고 작게 나누어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흙을 덮으며, 슬픔만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따뜻한 미소, 예배당 끝자리에서 묵묵히 움직이던 손, 병문안 가방을 챙기며 마음을 먼저 보태던 걸음—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이미 가족에게, 교회에, 이웃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족의 뜻에 따라 조의금의 일부를 지역 푸드뱅크에 기부하기로 하셨다는 소식도 권사님의 삶과 꼭 닮았습니다. 오늘의 눈물이 누군가의 내일을 살리는 양식이 되기를, 권사님이 평생 꿈꾸셨던 그 기적이 또 한 번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권사님을 흙으로 돌려보내지만, 권사님이 남기신 길은 계속됩니다. 배고픈 이웃을 기억하는 마음, 약속을 지키는 신뢰, 먼저 듣고 먼저 손 내미는 친절—그 길을 우리가 함께 잇겠습니다. 정동환 집사님과 자녀분들,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시길, 권사님이 지켜오신 가정의 사랑이 더욱 굳건해지길 축원합니다.

미자 권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우리에게 씨앗이 되었고, 당신의 사랑은 우리에게 길이 되었습니다. 이제 안식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으며 당신의 미소를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추도사는 chudosa.com에서 작성되었습니다.몇 가지 질문에 답하고 지금 나만의 맞춤형 추도사를 생성하세요chudosa.com

chudosa.com에서 나만의 맞춤형 추도사 작성